

지역민 면학·연찬 제공 '장흥학당' 어느새 20돌

강사 초빙 경제·문화 등 435회 강의, 지역현안 중심 연수 80회

지역 주민들에게 면학과 연찬을 제공하고 있는 사단법인 장흥학당이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이했다. 장흥학당(당주 김인규)은 '변화, 창신(創新), 중정(中正=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지나치지 않음)'이라는 독특한 자체 강령을 토대로 20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순수한 민간 자생 공동체다. 장흥학당은 지난 26일 학당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와 올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장흥학당은 지난 1994년 11월 초대 당주인 손수의 전 교통부장관의 아이디어로 출범했다. 현재까지 총 435명에 이르는 유명강사를 초빙해 지역주민들에게 정치와 경제, 문화, 교양 부문 등 다양한 주제의 연찬 강의를 제공했다. 또한 연 4차례씩 총 80회에 걸쳐 국내외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교육, 문화, 산업, 건설현장 등을 찾아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년 2회씩 총 40회 차례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등 지역의 당면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를 구성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흥학당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에 '학당 20주년 발간'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안전행정부 소속인 주육체 사무관이 '장흥학당'을 주제로 3년에 걸쳐 연구한 논문으로 지난해 12월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됐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학당이 출범 20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경제와 정치 그리고 언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진년 전 경제부총리. <나주시 제공>

장성서 '청림·반부패 학술대회'

박수량 선생-中 해서 비교 눈길

장성출신 아곡 박수량(1491~1554) 선생과 중국 명나라 해서(1515~1587), 청백리(淸白吏)의 본보기로 꼽히는 조선과 중국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박수량 선생은 38년간의 오랜 관직생활중에도 집 한칸 마련하지 않은 대쪽같은 선비정신과 백성들을 구휼하고, 권신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해 임금에게 과감히 상소를 올렸다. 중종은 사후 백비(白碑)를 하사해 맑은 덕을 기렸다. '남방의 포청천'으로 불리는 해서역시 두려움을 모르는 당당함과 직언, 상소로 중국 역사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사후 남긴 유산으로는 은 10여냥과 낡은 옷 몇벌, 낡은 책자, 비단과 배 각 한필 뿐이었다고 한다. 장성군과 (사)한국부패학회와 지난

26일 청림문화의 확산과 연구를 위해 공동 주최한 '청림·반부패 학술대회'에서 박수량 선생과 해서를 비교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가천대 이태준 교수는 '조선 청백리 박수량과 남방 포청천 해서 인격 비교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박수량의 부족한 듯한 겸허함과 시냇물처럼 투명한 청렴성, 해서의 도도한 황하의 탁류와도 같은 죽음도 불사하는 기상이 도처에서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림은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인 덕치(德治)주의와 위민(爲民) 사상의 실현을 위해 관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며 "유교가 21세기의 참된 변화를 이끄는 실천윤리로 거듭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김용기기자 yongho@



재난·재해 자원봉사단 발대식. 나주시는 지난 26일 나주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자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재해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봉사단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 및 복구지원에 나서게 된다. <나주시 제공>

담양 대나무박람회 캐릭터 '담이' '양이'

내년 6월27일~7월3일 개최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공식 캐릭터 이름이 '담이'와 '양이'로 확정됐다. (재)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박람회조직위)는 최근 캐릭터 이름 응모작 338건을 심사한 결과 담양과 박람회 특성이 잘 반영되고, 친근하면서 어감이 좋은 '담이'와 '양이'를 대

상에 선정했다. 또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8건(우수상 3·입상 5편)도 함께 수상작으로 정했다. 대나무 캐릭터는 담양을 표현할 수 있는 대나무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귀여운 이미지를 더해 표현했다. 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대나무 캐릭터 공식 명칭을 활용해 박람회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2015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죽녹원 일원에서 '대숲에서 찾는 녹색 미래'를 주제로 세계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장흥종합병원 행촌장학회, 45명에 3000만원

10년간 4억8000만원 전달

장흥 종합병원(원장 김동국) 행촌장학회가 지난 2005년부터 10년째 지역 인재육성과 사회복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행촌장학회는 지난 25일 지역 소년·소녀가장과 생활이 어려운 성적 우수학생 45명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촌장학회는 그동안 장학 관내 소년·소녀 가정과 재향군인회, 목회자, 군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19회에 걸쳐 632명의 학생에게 총 4억8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동국 원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장학사업을 펼쳐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체 형성, 사회복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행촌장학회는 김동국 원장의 선친이신 고 김재현 박사의 유지에 따라 2005년 세워져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전북

고창 풍천장어 양식 과학화

12개 어가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 적용

폐사율 20%→10%로 낮추고 소득증대 기대

고창 풍천장어 양식에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이 적용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U-IT 풍천장어 생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최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5억4000만원(국비 2억1600만·도비 8100만·군비 1억 8900만·자부담 5400만원)을 투입해 풍천장어 양식 12개 어가에 수조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계별로 생산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생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U-IT를 기반으로 신기술을 접목해 풍천장어 생산의 과학화와 정밀화를 통한 생산방식 개선과 어업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 시스템 주요기능은 ▲뱀장어 양식장 수조환경(수온·질산염·암모니

아·Ph·용존산소) 실시간 모니터링 ▲수조별 환경정보 및 성장일지 관리 ▲품종·성장단계별 환경정보 통계 및 분석 ▲모바일 모니터링 환경 및 이상신호시 비상통보 ▲품종별 생산기술 공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기존 폐사율(20%)을 10% 정도로 낮춰 kg당 4미 기준으로 양식장당 연간 1억원의 손실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싼뱀장어의 입식에서 출하까지 생산기간 역시 평균 12개월에서 1개월을 단축시켜 수조 순환율을 늘림으로써 수조당 8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 풍천장어는 관내 양식업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입원이지만, 아직까지 인공부화 기술

이 개발되지 못해 싼뱀장어를 양식장에 입식한 후 성장시켜서 출하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폐사율이 20% 정도 발생하고, 수조의 환경과 생육 방법에 따라 출하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양식과정이 까다로워 생산경험이 부족한 양식어민들은 실패율이 높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성장단계별 환경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양식어민들의 노하우를 IT기술에 접목시켜 싼뱀장어 입식에서 성어 출하까지 최적의 성장조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강수 군수는 "U-IT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고품질 생산 기술을 축적, 고창 풍천장어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명품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 풍천장어 생산규모는 2011년 기준 2040t으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내장산 너도바람꽃 '활짝' 남쪽으로부터 화신(花信)이 북상하며 최근 너도바람꽃이 내장산 국립공원 기슭에 꽃망울을 터뜨렸다. 너도바람꽃은 산림청이 지정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다. <내장산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단신

'금석배 전국 초·중학생 축구대회' 폐막

전국 축구 꿈나무의 등용문인 '2014 금석배 전국 초·중학생 축구대회'가 12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대한 축구협회와 전북도 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 48개 팀, 중등부 55개 팀 등 모두 103개 팀이 참가했다. 우승을 차지한 팀은 ▲초등 학원부 경북 포

철동초 ▲초등 클럽부 경기 수지구 니어FC팀 ▲중학교 저학년부 김제 금산중 ▲중등부 해남중 등이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국내 축구발전 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공헌한 군산출신 고 재금석(1904~1995년)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2년 창설됐다. /군산=박승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경찰서, 개학철 신입생 교통안전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개학을 맞아 교통사고에 취약한 신입생과 저학년의 교통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읍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시간에는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회와 스쿨존내 합동 근무를 하고, 하교시간에는 전

교생 100명 이상 11개 초등학교에 대해 순찰차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김동봉 서장은 "개학을 앞두고 이후·해운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을 마쳤다.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발급 창구' 운영

순창군은 '전자여권 본인직접 신청 의무제'가 시행되면서 낮 시간에 군청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야간 여권 발급창구를 운영한다. 야간여권 발급신청은 전화나 구두

로 사전예약한 후에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등을 지참해 군청 민원관을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방문 신청해야 하며,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 등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서울 장학숙' 2015년 안양에 건립

120명 수용 규모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정읍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이 오는 2015년 세워진다. (사)정읍시 애향운동본부(이사장 이한욱)는 "내 고장 자녀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시작한 '서울 장학숙'이 2015년 3월 개관 목표로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건립된다"고 밝혔다. 서울 장학숙은 부지면적 1558㎡·연면적 4321㎡(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총 60실(2인1실)을 갖춰 1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조갑도) 정읍시민 장학재단은 2012년 11월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애향운동본부가 2013년 2월부터 '정읍시민 1인

1개와 갖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재능기부를 약속한 ㈜중합건축사 사무소 팀(대표 김동술)에서 설계 검토중이며, 올 상반기 장학숙의 규모와 건축 방침을 확정 후 실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한욱 이사장은 "서울 장학숙이 건립되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역학생들이 거주 공간 마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총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북 혁신도시 초·중학교 첫 개교

만성초·온빛중 내달 입학식

전북 혁신도시에 건립된 전주 만성초와 만성초 병설유치원, 온빛중 병설유치원은 4학급(85명) 규모로 3월에 문을 연다. 원생중 20여 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다. 만성초는 29학급에 645명, 온빛중은 10학급에 257명이다. 또 만성초 병설유치원은 4학급(85명) 규모로 3월에 문을 연다. 원생중 20여 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자녀들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내달 8일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제26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가 3월 8일 남원시 산내면 부운마을(반선관광 주차장)에서 열린다. 남원시 산내면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고로쇠 약수제는 산내면 농약단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약수제 길놀이 행사와 약수제례, 기념식 등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뱀사

골 고로쇠약수 힐링 걷기대회(반선주차장~와운마을 천년송·왕복 5km), 지리산골 노래자랑, 고로쇠 이벤트 및 경품추첨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저렴한 가격에 고로쇠 약수를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판매장도 운영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787@kwangju.co.kr